

‘오전 10시 57분부로 순시예비력이 450만 kW 미만으로 저하되어 전력수급 정보 준비단계 발령.’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가 되면 휴대전화 화면 창에 이 같은 내용의 ‘전력 예보상황’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뜬다. 마치 그날의 일기예보를 방송하듯이 전력당국에서 당일 기온상황과 연계해서 전력수요에 대한 예측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지난 2011년 9월 대정전 사태, 올해 5월에 터진 원전비리로 여러 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된 이후 이 같은 전력예보를 먼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된 듯싶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하면서 ‘대정전’이라는 불의의 사태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기자의 직업 속성상 이러한 전력 예보는 매우 중요한 소스(Source)가 되기 때문이다.

전기절약, ‘전 국민 여름 휴가가기’로 동참하자!



박양수
문화일보 경제산업부 차장

요즘 우스갯소리 중에 한국의 4계절이 예전보다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말이 있다. ‘봄 · 여름 · 가을 · 겨울’로 구분되던 우리나라의 날씨가 ‘여름과 엄청 더운 여름, 겨울과 엄청 추운 겨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은 전력의 소비가 가장 크게 늘어나는 시즌이다. 특히 올 여름은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역대 최악의 전력수급 상황이 우려된다고 한다. 게다가 각 가정마다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최대 전력이 가파르게 증가, 이슬이슬한 상황이 반복되는 등 전력당국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전력 공급능력이 7700만 kW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형 발전소 1~2기만 추가로 가동 중지되면 ‘블랙아웃’(대정전 사태)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도.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찌 해야 할까? 대형 발전소를 갑자기 추가로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 해결책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고육지책(苦肉之策)이긴 하지만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 수요를 줄이는 게 정답이다. 정부에서도 최근 '100W 줄이기' 절전운동에 전 국민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 운동은 TV 1대 끄기, 백열등 2개를 LED 전등 한 개로 바꾸기, 에어컨 가동 30분 쉬기 등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부분이다. 나 한 명부터 실천하는 작은 전기절약이 모여 국가적인 에너지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필자는 이 상황에서 독자들에게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다. 여름휴가를 아까지 말고, 모두 쓰자는 것이다. 때마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의 63%가 계획대로 여름휴가를 떠날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예상 전력소비량의 2.2%인 3만 5286TOE(TOE ; 국가에너지 기구에서 정한 석유환산톤)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소비전력 100W 급 형광등 램프 약 84억 개를 1시간 동안 켤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고 한다.

'전 국민 여름 휴가가기' 운동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각 부처의 장·차관, 각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까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통령이 휴가를 가지 않는다면 어느 국무위원이 마음껏 쉴 수 있겠는가. 또 기업의 상사가 휴가보다는 일을 더 좋아한다는 데 부하들이 감히 휴가를 낼 수 있을까. 얼마 전 발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일부 부처 장관들의 휴가일정 및 계획이 공개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8월 7~9일 3일간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라고 한다.

휴가는 휴가다워야 한다. 시원한 산과 계곡에서 마음껏 여름휴가를 즐기면서 심신을 회복하다 보면 전력수급 위기 극복에도 동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휴가를 마다해선 안 된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지만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는 J. 하비스의 말이 있다. 또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는 존 포드의 얘기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은 진정한 의미의 휴가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서부터 출발해보자. 